

◀하나님! 나의 하나님▶

아내의 마음

TV를 켜면, 거리에 나가면
놀라운 몸매의 미인들 넘쳐 나지만
당신의 아내의 넉넉한 뱃살은
헬스클럽에 등록하느니
남편 보약 한첩,
애들 먹거리 하나 더 사들이는
아내의 넉넉한 마음입니다.

직장에도, 대학에도, 국회에도 똑똑한
여인들의 목소리 넘쳐나지만
당신 아내의 넘치는 잔소리는 깨끗한집,
반듯한 아이들, 건강한 당신을 위한
아내의 사랑의 외침입니다.

멋진 섀그라스에 폼나게 운전대 잡은
도로의 사모님들 넘쳐 나지만
당신의 아내가 버스의 빈자리를 보고
달려가 앉는 건 집안일에, 아이들 등상에,
남편 뒷바라지, 지친 일상에 저런 육체를
잠시 기대어 쉴 틈터가
필요한 까닭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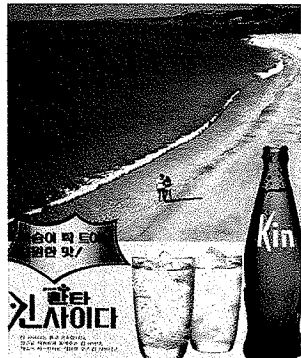
결혼전에는 새 모이만큼 먹더니
요즘은 머슴밥 같이 먹어대는 아내
당신의 아내가 아이들이 남긴밥,
접시 귀퉁이의 반찬까지
먹어치우는 것은 당신의 늦은 귀가로
밀려 돌아가는 식은밥,
남은 반찬의 음식쓰레기 처리가
두렵기 때문입니다.

모처럼의 가족 나들이에
세련된 화장, 멋진 옷차림을 바라지만
당신의 아내가 편한 고무줄 바지에
혈령한 티셔츠에, 굵 낮은 구두를 신고
나서는 것은
사랑스런 당신의 아이들을
더 잘 돌보려는 엄마의 소중한 마음입니다.

밖의 밥이 지겨운 당신
김이 모라모라나는 갓 지은 밥을 먹고 싶은
당신에게 아이들 앞세워 외식 타령하는
당신 아내는 365일 밥짓고 치우는 그녀가
반찬 걱정, 치울걱정 없이 잠깐의 여유라도
찾고 싶은 소박한 소망입니다.

꿈 많고, 아름답고, 날씬하고, 건강했던 그녀가
아무런 꿈도 없이, 생각도 없이, 하루하루를
그냥 살아가는 보통 아줌마가 되어버린 것은
당신에게 그녀의 일생을 걸었기 때문이며
그녀의 꿈이 바로 당신이 되어 버렸기 때문입니다.

아가씨 때의 당당함은 어디로 갔는지
“자기, 날 사랑해, 사랑하긴 하나구”
귀찮도록 따라 다니며 물어대는 당신의 아내
그녀에게 필요한 것은 아무런 느낌없이
아내이기 때문에 던져지는 포옹이 아니라
가슴 가득 안은 사랑을 사무치도록 전하는
그런 포옹입니다.



◀그뎌 그랬지▶ 켄 사이다

「♪슈슈슈바 슈비슈바 칠성사이다……」으레 칠성사이다만이 있는 줄 알던 어느날 ‘켄사이다’가 나와 호기심으로 마시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소풍때면 일회용 나무도시락에 삶은계란 몇개와 칠성사이다 한병으로 마음까지 푸짐했던 시절에 켄사이다의 등장은 다양한 음료의 선택이 조금씩 주어지는 풍요로움의 첫 걸음이었습니다.

‘켄’으로 마시는 멋진 모습은 영화에서나 보면서 부러워 하던 그 시절, 그래도 병채로 입에 물고 마시던 그 때의 소박한 낭만이 이제는 갈증나게 그림습니다.

교회 목표 하나님만이 삶과 교회의 주인	2004년 교회생활: “바보 같은 교회” 갈보리교회 Calvary Presbyterian Church	교회생활지침 누가 10:37 *자원함 -성김과 봉사 *익명성 -명예
제6권 22 호	기초성경공부이수. 정장으로 예배. 남 이야기 금지	2004년 5월31일
☎520-9464/369-5077, 71 Khyber Pass Rd.(The Church of Holy Sepulchre) calvary.byus.net		

가난함에 옵니다

-조금엽-



넓고 좋은 집을 가지지 못한 부러움이 아니올시다.
더 좋은 차, 값비싼 보석을 갖지 못하는 안타까움이 아니올시다.
더 맛있는 음식을 먹지 못하는 서러움이나 화려한 옷을 부러워함이 아니올시다.

눈이 있으나 보지 못하고
귀가 있으나 듣지 못하고
손가락으로 짚어 말씀하시나 깨달지 못하는
내 영혼의 가난함에 목놓아 옵니다.
믿음의 나이 오래다 하나
하나님의 마음을 알지 못하는 무지함에 옵니다.

내 영혼, 하루에도 열두 번 곤두박질치지만
날마다 새로워지기를 갈망하오니
성령이여!
나를 도와주소서.
밭목에서 찰랑이는 알은 물가에서
은혜의 깊은 바다로 나아가기 원하오니
성령이여!
열어주시옵소서.

어두운 내 눈, 막혀진 내 귀, 봉해진 내 입을 활짝
열어주셔서
놀라운 주님의 세계를 누리게 하소서.
내 인생을 향하신 주님의 계획을 이해하게 하소서.
능력의 물줄기 내 삶 속에 굽이굽이 물결치게 하셔서
주님의 광대하심을 선포케 하소서.

◀남편 십계명▶ 잊지 않기

“결혼 기념일과 아내의 생일을
잊지마십시오”

◀아내 십계명▶ 말하기

“남편에게 따질 말이 있을 때면
남편의 기분상태를 참작해야 합니다

주 립 예 배

(* 표에 영어서시기 여려운 곳은 영어로 쓰여져서 드리시기 바랍니다)

영 광 찬 Gloria Calvary

아 름 이

성회의 기도
Confession Pray
영사의 선언
Proclatun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다 란 이

*성 시 기도
Response Reading
*신앙 고백
Apostle's Creed
교회 소식
Welcome & Announcements

47 (요한 15장)
사 도 신 령

다 란 이

기 도
Prayer
성경봉독
Scripture Reading
성가대 찬양
Choir

마태복음 14:22-33
(막6:54 요 6:16-21)

원석호 안수집사

인 도 자

시나는 예수님의 기적(5)
를 읽을 줄은 예수, 빠진 베드로

원석국 목사

다 란 이

찬 송
Hymn
원 금 기도
Offering Pray
응답 찬 송
Response Song
축도
Benediction

495장

'이 믿음 더욱 굳어라'

인 도 자

원석국 목사

(예배를 마치고서 Hall에서 Tea Time를 갖습니다)
◆5월, 6월의 예배위원 ◆6월의 교회력◆

원자	기 도	원금위원	원석이
30	원석호	유병민	3구역
6	김만석	문정화	4구역
13	김순자	이근평	5구역
20	김영길	이기중	충년부
27	김종건	이재공	6구역
27	이석준기주립		
20	은선자가찬양	석사친교(20)	
13		민용의여머니기도회(14)	
6	성찬주립	기초성경공부(1) 충년부바자회(6) Tennis 모임(6)	

2004년 교회표어
"바보같은 교회" (창6:22)
*참음대로 하면 손해본다. 그래도 해야한다
*누구나 평등하다. 그래도 아버지를 복인다

*3주간 예배, 전교향석 이후에
특별 자력이 주어집니다
*여러교회를 다녀 보신후 결정
하시어야 바를 판단이 됩니다

1. 교우소식

<한국방문> *박상목, 이은선 집사

*최재학 집사, 노은숙 권사

<음복교우> *김근석, 박미숙 집사, 다민, 다인, 한민

☎638-9119 ☎2/24 King Edward Ave. Epsom

*이기동 박지영, 황원석 성도

☎377-3464 ☎208/97 Anzac Ave.

2. 우리는 "이삭줍기주립" 불려드립니다.

*한량간 가정, 사업에서 모은 Silver Coin만을 드려 동남아(필리핀, 태국) 어린이와

고국의 어린이가 장를 위해 귀중하게 보내드립니다.

3. 기초성경공부(10기) 둘째 주간

*교회 등록후 4번의 기초성경공부과제정입니다

<원시> 월요일, 화요일 (31.1월: 월, 화요일 저녁 7:30)

4. 수요예배 <레위기 강해> 수요일 저녁 7:30

*잔잔하면서 기도에 은혜를 얻는 찬양, 가락과 교우를 위한 기도, 한결씩 젊어지며

하나님의 뜻을 찾는 말씀강해, 거기에 힘으로 돌아 란 시간 놓치게 하는 Heater

주위에서 따뜻한 차 한잔...

5. 정기당회(학대당회), 6월3일 저녁 7:30, 장년부원

6. 찬, 처도, 찬 못쳐도 Tennis를 좋아하는 교우들의 전선Game

<원시> 6월 6일(다을 주립) 오후 2시- 6시 <회비>\$20

<장소> Beach Heaven Sports Centre <신청>김영린 집사

<Tennis Club 회장> 양경배 집사 <진행> 김영린 집사

*복식game으로 진행됩니다

▶착한 사람들▶ 란공수도대의 '별' 중에서

아머! 그럼 별들도 결혼을 하나요?"

"물론이죠, 아가씨."

그 결혼이라는 게 어떤 것인지를 이야기해주려

고 하고 있을 때, 무엇인가 싸늘하고 부드러운

것이 참여서 내 어깨를 누르는 것 같았다. 그

것은 줄음을 참지 못하고 어느새 작은 스테파

네트 아가씨의 머리였다. 리본과 레이스와 구

불꽃불한 머리카락을 앙증스럽게 비벼대며 내

이때에 머리를 가만히 기대온 것이었다.

이때에 이런 생각이 내 머리를 스치곤 왔다.

저 수많은 별들 중에 가장 아들답게 빛나는 별

하나가 그만 길을 잃고 헤매다가 지진 나머지,

내 어깨에 고이 잠들어 있노라고.....

요즘들어 자주 오는 비 밖에 특
명제로 나타나는 별들은 차갑게
보여지면서도 윤기가 넘는다.
'여름별은 별과 우리가 반감아
가며 헤이는 친구라면 '겨울별'
별은 가까이 하기 부끄러운 주
인침 소녀와의 거리 같습니다.
마침내 별빛과 별빛이 반짝일
별빛과 별빛과 싸인 차가운 눈
빛이 서로 어우러져 더 그런 것
같습니다.
별들은 고향이고 그리움이고 사
랑입니다.